

예천군지역의 역사적 변천과정

-고지도와 지리지의 비교분석

李翰邦

대구대학교 도시과학부 겸임교수

변화의 속도가 느려서 장기지속적인 전체사의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지리적 환경에 대한 적응결과로서의 地表景觀을 도면상에 표현한 고지도는 當시대인들의 세계관과 공간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인간을 둘러싼 지리적 환경은 장기적으로 변하는 구조이다. 장기지속의 구조사는 지리지와 고지도에 잘 표현되어 있다. 지리지와 고지도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지 야외답사를 통하여 경관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성과 한국 전통지역사회의 원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정상기의 동국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북방영토인식, 군현지도, 시대상의 복원과 지리환경 인식, 회화의 측면에서 본 고지도, 지명과 영토문제, 서양식 세계지도의 전래과정 등의 연구주제들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¹⁾ 그러나 기왕의 연구는 고지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파악과 해제, 전체적인 유형 분류, 특정주제에 대한 고지도 이용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구체적인 지역사회의 대하여 고지도를 通時代的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²⁾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경관과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촌락경관이 남아 있는 지역사회경관에 대한 고지도와 지리지를 활용한 연구가 시급하다. 고지도는 옛 지명,산천,도로,역원,행정구역,역사적 위치의 파악과 문화경관 복원의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지역사회 단위의 연구가 필요하다.

19세기 말엽에 편찬된 읍지와 지도는 서양과 일본의 침략으로 변모되기 이전의 한국 각 지역의 모습을 추적하고 복원하는데 긴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현대 한국지역사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지난 400년간의 지역변화를 고지도와 지리지·읍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석하여 시대상의 복원과 지역사회의 正體性 확립에 일조하고자 한다.

1. 연구목적과 범위

인간생활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자연환경(지형, 기후)에의 적응방식과 표현방식의 차이를 지리지와 고지도 분석을 통하여 장소의 지역성과 고유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장기지속적으로 변동되지 않는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적 요소로서의 지리적 환경과 지역성의 파악은 연구의 필요성과 긴요성에 비하여 연구가 부진한 상태이다. 지리지와 고지도에 대한 通時的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현지조사와 분석은 한국전통사회의 지역구조와 경관을 재구성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는 예천군지역을 형성하였던 예천군, 풍기군, 용궁현 지역의 동여비고를 중심으로 하여 해동지도, 대동여지도, 1872년의 조선후기 지방지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동여비고는 앞 부분에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역사지도가 수록되어 있어서 삼국사기지리지와 고려사지리지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지역의 연혁 변천을 파악하고자 한다. 1750년대의 여지도서와 해동지도, 1870년대의 영남읍지와 조선후기지방지도를 비교하여 변화의 양상을 분석한다.

1) 양보경, 2001, "전통시대의 지리학",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78-82

2) 김한기, 1999, 조선시대 지방도읍의 공간구성과 기능-성주목·밀양도호부·청도군·고령현의 경우-,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조경희, 1999, 경상남도 행정구역 변천의 역사지리적 연구-1759~1914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 이영희, 2000, 진주시 도시구조에 대한 역사지리적 연구-고지도 및 지형도 분석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논문; 김성희, 2001, 동래읍성의 형태적 특성과 변화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 예천지역의 시대별 지역변화

1)삼국사기지리지(1145년, 고려 인종 23년)

지방행정제도의 변화에 초점이 있어서 군현의 소속관계와 행정지명의 변화를 다루고 있을 뿐 지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해 주지는 않는다. 삼국사기 34~36권은 신라, 37권은 고구려·백제의 지리지로 편제된 것이다. 지명의 변천을 파악하는 기준 시점은 지명이 중국식으로 개명되었던 신라 경덕왕 16년(757년)과 삼국사기가 편찬된 1145년이다.

2)고려사지리지(1451년, 조선 문종 원년)

고려사지리지는 고려사 137권 중 56~58권으로 편제되어 있고, 전국을 5도 兩界로 나누고 그 아래로 州府郡縣명을 나열하여 그 상호 通屬관계만 밝혔을 뿐 현 이하의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군현의 昇降 이외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고려 성종 2년(983년)에 12牧이 설치될 때 처음으로 외관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중요한 지역에 한하여 외관을 두었다.

3)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단종 2년)

세종실록지리지는 세종14년(1432)에 편찬된 '신찬 팔도지리지'를 약간 고쳐 단종 2년(1454년) '세종실록'의 편찬이 완성될 때 실록편찬에 그 부록으로 넣은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조선왕조의 새로운 정치·사회·경제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을 기본목표로 국가의 통치자료를 수집·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편찬되었다. 특히 戶口·군정·토산 등의 경제관계 항목, 군영·성곽·관방 등 군사국방 관계 항목, 성씨·인물 등 주민들의 신분구성에 관한 항목이 자세하다.

4)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중종 30년)

동국여지승람은 성종 7년(1476년)에 노사신·강희맹·서거정·양성지 등에 의하여 편찬되었는데 송나라의 '方輿勝覽' 체제를 참조하여 '팔도지리지'와 '동문선'에 수록된 우리나라 문사들의 시문을 첨가하여 편찬하였다. 그러나 명나라에서 '大明一統誌'가 1463년에 편찬되자 1485년에 김종직 등이 동국여지승람을 대명일통지 체제로 바꾸고 그 내용도 대폭 수정하였다. 이 수정본을 교정 증보하여 1530년에 신증동국여지승람 55권이 완성간행되었다. 이 책은 禮·俗·詩文 등 유교적인 문화요소가 보다 강조된 관찬지리지의 전형이다.

5)동여비고(1682년): 各道別區分(경상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1998년에 경북대학교 출판부에서 영인되어 학계에 알려진 동여비고는 17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군현도와 道別圖의 중간 형태의 지도집이다.³⁾ 앞부분은 삼한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지도로 삼국사기 등의 史書를 바탕으로 영토의 범위, 위치의 比定과 고지명을 많이 표기하고 있다. 뒷부분은 서울도성과 강화도 등의 중요지역에 대한 상세한 지도와 조선 팔도를 각 도별로 3-5부분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다. 이 부분은 도별도와 개별 군현도의 중간 형태를 보여 주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상세하며 당시 지역사회를 상세히 표현하고 있다. 각도의 첫 부분에 총도를 두고 각도의 전체 군현의 위치와 주요 산천, 교통로를 표시하고 좌도와 우도, 동도와 서도, 남도와 북도로 각각 구분하여 전체를 표현한 후 뒤에 3-5부분으로 나누어 상세한 지도로 표현하고 있다.

경상도는 중종 14년(1519년)에 본도의 일이 번다하다 하여 左道監司와 우도감사로 나누어 낙동강 以東을 左道, 그 以西를 右道로 구분한 것이 시초인데 1592년,1593년,1595년,1596년,1601년에 변화가 있었으나 1896년에 좌도와 우도를 南道와 北道로 재구분 할 때까지 유지되었다.⁴⁾ 현풍현은 낙동강 왼쪽(동쪽)에 위치하고 고려시대에는 밀성군(밀양), 조선초기 세종실록지리지의 界首官道때는 밀양대도호부, 동국여지승람(연산 5년,1499년)에도 좌도인 大邱鎭에 속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여비고에서는 우도로 구분되어 있어 특이하다. 예천군·풍기군·榮川郡은 낙동강 오른쪽에 있는데도 좌도로 구분하고 있다. 예천과 풍기,영천의 경우는 통일신라의 九州五小京 체제에서는 상주에 속했으나, 고려시대의 五道兩界 체제

3) 이상태, 1998, 동여비고 해제, 경북대 출판부 고전총서 3 동여비고, 16-22

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증보문헌비고 여지도 1, 276-277

에서 부터 조선시대 내내 안동부에 속하여 좌도로 분류되고 있다. 용궁현은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상주목에 속하고,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좌도인 安東鎭에 소속되어 있는데도 동여비고에서는 우도로 구분되고 있다.⁵⁾ 그러나 조선후기로 가면서 용궁과 현풍이 좌도로 구분되고 있어서 동여비고의 제작시기가 빠른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경상좌도였던 예천군과 경상우도였던 용궁군은 ~니껴 형 방언과 ~여 형 방언으로 구분되고, 퇴계학파가 안동동북부지역의 학봉학파⁶⁾와 상주와 예천, 안동서남부지역의 서애학파로 분화되는 경계선이며, 通婚圈과 향교출입권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구분선이다.

<표 1> 전라도 군현 소속의 시기적 변화(OHP) <표 2> 各道別 州·府·郡·縣의 편성표(OHP)

조선후기에는 전라좌도인 광주가 동국여지승람과 동여비고에서는 우도로 표현되어 있다. 여지승람과 조선후기에 전라우도로 구분된 강진·진도·제주·정의·대정현이 동여비고에서는 좌도로 구분되어 있어 이채롭다. 담양·장평·진안은 다른 문헌과는 달리 동여비고에서는 전라우도로 구분되어 있다. 1499년에 우도였던 장흥·남평이 동여비고와 조선후기에는 좌도로 변화되고 있다.(표 1 참조) 경상도 도면에는 對馬島를 표현하여 당시 사람들의 영토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동여비고에서는 정선이 영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동국여지승람과 조선후기에는 嶺西로 분류되고 있다.

6) 여지도서·해동지도 시대의 예천지역(1750년대): 행정구역의 변화와 상징경관

동여비고 보다 70년 후인 1750년대에 제작된 해동지도는 산천 형세와 진산을 풍수지리적으로 표시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객사, 읍 守令의 집무·생활공간인 衙舍, 고을 향민을 대표하는 향청, 지방통치의 종교적·이념적 역할을 하는 향교 안의 文廟, 사직단, 성황단, 厲壇이 1묘 3단을 左廟右社로 배치하고 있어 유교적 통치이념을 읍치 구조로 경관 상에 구체화하고 있다. 읍성과 향교·서원·樓亭·社倉도 읍치경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해동지도는 面里名을 상세히 표현하고 있어 행정구역의 변경을 이해하는데 긴요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해동지도 상의 행정구역을 현재의 영역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안동부; 녹전면·도산면·예안면을 제외한 안동시 전역+예천군의 감천현+봉화읍(내성) +법전, 춘양 일부+석포면·재산면·소천면+물야면 개단부곡/ 邑治- 안동시 동부동

풍기군; 영주시 풍기읍, 봉현면, 안정면+ 예천군 상리면, 하리면/ 읍치-풍기읍 성내리

醴泉郡; 예천읍, 龍門面, 普門面, 虎鳴面, 柳川面, 開浦面 동부, 풍양면 남부+ 문경시 冬老所面, 山北面 동부(化莊面 內化里)+의성군 多仁面/ 읍치-예천읍 路上里

龍巖龍巖宮縣; 용궁면, 知保面, 豊壤面 북부, 開浦面 소재지 서부+ 의성군 안사면 북부, 쌍호·월소·신수리 + 문경시 영순면 동부/ 邑治- 용궁면 향석리

比安郡; 비안면, 구천면, 안계면, 안사면 남부, 신평면 검곡리 교안리/ 邑治- 비안면 동부리, 서부리

1750년대의 해동지도에 표현된 행정구역은 1906년에 월경지가 혁파되고 1914년의 日帝가 행정구역을 통폐합 할 때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는데, 大邑인 안동부와 상주목의 월경지가 특히 많았다. 일제는 행정구역을 식민통치에 맞게 통폐합하면서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이 형성되게 되었다.⁷⁾

5) 원경렬, 1991, *대동여지도의 연구*, 83-121, 성지문화사

6) 안동 서후 금계의 김성일, 장흥효-영해 인량리, 영양 석보의 갈암 이현일, 밀암 이재-일직면 소호리의 대산 이상정-임동면 무실의 정재 유치명-금계의 서산 김홍락으로 이어지는 학봉학파와 하회마을의 서애 유성룡-상주 우산리의 우복 정경세-상주 우물리의 수암 유진-우산리의 정도옹-우물리의 유천지-우산리 입재 정종로-우물리의 강고 유심춘, 계당 유주목으로 이어지는 서애학파로 양분된다. 이 학맥은 혈연과 지연, 家學과 通혼으로 서로 중첩되어 형성되고 있다.

7) 손정목, 1992, 116~170, 일제가 1910년 한국을 강점했을 때 12府 317郡이었는데 220郡으로 감축하여, 109개군을 폐합하였다. 이유는 경비의 절약과 施政上의 편의에 있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토지조사사업으로 각 지방의 지형·지세·면적 등이 명확히 파악되자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였다. 경북은 42郡이 23군으로 경남은 29군이 19군으로 감축되었다.

본고에서는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월경지 분포와 행정구역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안동대도호부는 예천군의 감천면, 봉화군의 재산면, 춘양면, 법진면, 석포면, 물야면 개단부곡,내성면,소천면 등 광범위한 월경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동여지도상의 월경처를 안동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표현하면 <그림1>과 같다. 순흥부는 풍기군 창락면, 영천군 대룡산면, 봉화군 와단 등에 월경지가 있고, 영천군은 순흥부의 답곡면·지곡면·韶川面·오록면과 봉화군의 林只面 등 다섯 곳에 월경지가 분포하고 있었다. 예천군은 현동면이 월경지로 표현되어 있다.

<표. 3> 大東輿地圖上的 越境處(1864년)(OHP)

자료: 원경렬, 1991, 대동여지도의 연구, 성지문화사, p.94에서 재구성

<그림 1> 안동 주변의 越境地 자료: 이수건, 1985,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OHP)

7) 영남읍지, 조선후기지방지도; 1870년대

3. 예천지역 고지도에 표현된 邑治景觀

1) 산천 체계의 변화 ; 동국여지승람·동여비고·해동지도·대동여지도 분석

지리지와 지도를 합한 책인 동국여지승람의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는 八道總圖와 八道州縣圖를 지칭하는 東覽圖는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嶽瀆과 名山大川 그리고 각 주현의 鎭山만을 표기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⁸⁾. 풍수지리적 관념과 고대 산천신앙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의 지도에서도 산천이 중시되어 동람도에 표기되고 있다. 이 산천 표기를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주변환경에 대한 관념과 유기체적인 세계관을 추정할 수 있다. 산천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의 형세는 오랫동안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인식하는 방식과 중요시했던 것들을 잘 알 수 있다. 동람도에는 군현의 이름과 대략적인 위치, 진산·산천·요해지가 간략히 표현되어 있는 데 비하여, 동여비고에서는 태백산으로부터 山의 脈이 이어져 오는 모습과 진산에서 읍치까지의 거리를 표현하고 있어 풍수적 관념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군현내의 지명에는 읍치로 부터의 거리를 기입하여 邑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다⁹⁾ (그림2, 그림3 참조).

해동지도는 군현지도로서 산세가 이어져 오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산천의 모습과 위치가 정확해져 가고 있다. 고을터(邑基)를 중심으로 主脈의 山勢와 진산을 표현하고 읍치를 지세적 중심위치에 두고 객사와 아사, 3壇 1廟를 배치시키고 있다. 또한 읍 중심부를 지도의 중앙에 상세히 표현하고 주변을 간략하게 표시하는 등 서울·임금·읍치 중심의 세계관을 볼 수 있다. 대동여지도는 풍수적 관념에 따라 정확하게 산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4 참조). 동국여지승람, 동여비고, 해동지도, 대동여지도에서 경상도 북부지역에 표기된 산이름은 <표4>와 같다.

<표 4> 古地圖上에 표시된 山이름(OHP)

자료: 방동인, 2001, 한국지도의 역사, p.105와 동여비고·해동지도·대동여지도 분석으로 재작성

<그림 2> 東覽圖-慶尙道 <그림 3> 東輿備攷-慶尙道左右州郡總圖,p.82 <그림 4> 大東輿地圖(OHP)

2) 지명과 행정구역의 변화

동여비고에서는 예천군(水洞,甫川,基陽,清河,襄陽), 풍기군(基木,基州,基川,永定,安定), 용궁현(竺山,園山,龍州), 안동(古陀耶,古昌,永嘉,吉州,福州,綾羅,地平,石陵,一界,花山,古藏,昌寧國,古寧), 예안(買谷,善谷,宣城) 등의 옛 지명들을 풍부하게 주기고 있어 지역의 연혁이 변화해 온 과정을 역사지리학적으로 잘 보여

8) 이상태,1999, 43-47

9) 김기혁,2000, p.34

주고 있다. 읍치 옆에 연혁을 나타내는 지명과 더불어 서울로부터 읍치까지의 거리를 併記하여 서울과 읍치의 중심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예천군의 별칭인 水洞은 水酒의 誤記이고, 비안군의 阿火屈은 阿火屋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 동여비고에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 있었던 古縣의 명칭과 위치가 기록되어 있어 각 군현의 옛 지명을 추적하기 쉽다.

동여비고의 지명 중에서 灋川은 漢川으로, 沙川은 乃城川, 斜川은 渭川으로 변경되었다. 1542년에 창건된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은 보이지 않고 宿水寺가 표현되어 있다. 이 고려시대의 숙수사가 조선시대에 유교가 통치이념으로 정착되면서 숙수사 터에 소수서원을 건립하여 불교문화경관이 유교문화경관으로 교체되고 당간지주만 남아 있어 옛 숙수사 터임을 알려 주고 있다. 지배세력의 교체와 인간집단의 문화변동에 따라 공간이용이 변화되는 것을 지리학에서는 順次的 占有(Sequent Occupance)라고 한다.¹⁰⁾ 동여비고에는 부석사, 용문사, 쌍악사, 용천사, 양지사, 용수사, 각화사 등의 사찰이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서원과 향교, 정자 등의 유교적 건물은 거의 표현되어 있지 않아 이채롭다. (그림 3 참조)

동국여지승람, 동여비고, 해동지도, 대동여지도, 조선후기지방지도를 비교하여 지명과 행정구역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현재의 예천군지역은 해동지도에 표현된 예천군에서 동로소면과 월경지인 다인면을 제외한 지역과 용궁현의 용궁면·지보면·풍양면·개포면 서부지역과 풍기군의 상리면·하리면과 안동부의 월경지인 감천면이 합쳐져서 형성되었다. 1914년에 예천군과 용궁현이 통폐합되고 1922년에 풍기군에서 상리면·하리만이 편입되었다. 일제가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변경하였다. 예천군은 신라 경덕왕(757년) 때 처음으로 지명이 나타나서 기양·청하·양양·보주·보천 등으로 변경되기도 했으나, 1200년 이상의 오랜 수명을 지닌 유서 깊은 지명이다.¹¹⁾

행정단위(面里)이름들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해동지도¹²⁾와 東輿圖¹³⁾, 조선후기 지방지도에는 坊里名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재의 행정구역명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는데 예천군의 경우는 4가지 변화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면이름으로 존속; 보문면, 호명(리)면, 개포(리)면, 유(동)천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용궁면, 동로(소)면,

(2) 리 이름으로 변화; 渚谷面, 동부면, 서부면, 동촌면, 노좌리면

(3) 자연마을 이름으로 변화; 화장면, 뇌택면, 위라곡, 동읍내, 서읍내, 남읍내, 신당동면, 생현

(4) 지명변화가 불분명; 只西牙面, 堂洞面, 陰山面, 諸古谷面, 流里洞面

용궁현의 경우는 읍내면, 서면, 남면, 북면, 內上面, 내하면, 申上面, 신하면 등의 면 이름이 용궁면과 소재지인 읍부리 정도의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다. 面 이름은 知保面, 풍양면으로 변경되었다.

풍기현의 경우는 상리면, 하리만이 1922년에 예천군으로 통합되면서 면 이름으로 남아 있고, 동부면, 서부면, 동촌면, 노좌리면은 리이름으로 남아 있다. 생고개면은 生峴里와 '생고개'라는 자연마을로 잔존하고 있다. (그림 5 참조)

3) 장소적 상징경관; 유교적 건축물의 표현: 해동지도

해동지도에는 예천군의 경우에 快賓樓·鳳栖樓·伴鶴亭·觀稼亭·邑湖亭·客舍·衙舍·思過齋·無爲堂·향교·정산서원 등의 건물이 많았으나 향교만 남아 있고, 객사는 대창고등학교 행정실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甘泉·鳳栖樓·德鳳山·飛鳳山과 造山인 鳳卵 등의 지명과 봉황이 오동나무에만 앉고 醴泉¹⁴⁾에서만 물을 마신다는 전설이 지명에 잘 나타나 있고 지도에 표현되어 있다.¹⁵⁾ 그러나, 불과 130년

10) 윤정숙, 1995, 90p, 313p. 순차적 점유는 연속적 점유, 점거계열 이라고 하며 1929년 미국의 Whittlesey, D.가 제안한 이후 미국에 보급되어 小地域의 歷史地誌,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많이 이용되었다.

11) 정구복 외, 1997, 역주 삼국사기 2 번역편, 586-609

12) 한국역사정보시스템(<http://koreanhistory.or.kr>)에는 1750년에 집성된 군현지도집인 해동지도와 廣輿圖의 지도와 해제가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13) 동여도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판각하기 전에 제작한 선행 지도로 18,736개의 註記名이 있는 정밀하고 자세한 지도이다. 대동여지도는 동여도에서 3800여 개의 坊里名을 비롯한 5,548여 개의 주기명을 생략하고 있다.

14) 최원석, 2001b, p.109

의 근대화과정 속에서 500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유교적 전통사회의 지역구조는 대부분 파괴되었다. 해동지도의 예천현 지도에는 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나는 사직단·성황당·여단 등의 종교적 건물은 표시되지 않았다.

용궁현의 경우에 객사·아사·社倉·水月樓·講武堂·蓮堂·향교 등의 건물이 많았으나 구읍인 향석리에 향교만 남아 있다. 용궁현 해동지도에는 高山堤·三沙堤·長安堤 등의 堤堰과 知保驛·대은역·天德院·석현원·省火川院·長安院·용서원 등의 驛院이 상세히 표현되어 있어 특징적이다. 풍기군의 경우에는 객사·아사·攄淸亭·향교·육양서원·우곡서원·문종대왕태실·은풍현 치소 등이 표현되고 있으나 향교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해동지도와 조선후기지방지도에는 邑治와 관아,내아,객사,향교,서원 등의 유교적 통치이념이 반영된 건물과 面里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동여비고와는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시대 유교적 통치이념의 상징인 邑治·동헌·객사 등의 유교적인 건축물이 소멸되고, 오히려 신라와 고려시대의 사찰과 탑, 불상이 남아 있어 최근 100년간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응변하고 있다.

예천읍치를 진호하는 사찰로 한천 남쪽의 개심사와 동본동의 사찰이 있었으나, 지금은 개심사지 5층석탑과 동본동 사지의 삼층석탑과 여래입상이 남아 있다.¹⁶⁾ 고을 비보 조형물은 남산공원의 관풍루 앞의 돌자라가 있다. 고을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의 원인이 읍에서 바라보이는 호명면 본동 뒷산과 종산동 뒷산의 火氣 때문이어서 남산에 돌자라를 조성하여 막으려 하였다.¹⁷⁾ 비보사탑,돌자라, 비보숲(읍치의 柳亭蔽) 등의 다양한 풍수적 방법으로 읍치의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邑基의 입지선정에는 산천형세의 풍수가 제일 중요시되었다. 조운과 도로의 편리성과 성곽을 축조할 수 있는가가 그 다음으로 고려한 사항이었다.¹⁸⁾

<그림 5> 海東地圖-醴泉縣(OHP)

4. 결론

예천군지역의 변화과정을 고지도와 지리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상좌도와 우도의 문화역사지리학적 의미와 행정구역의 변화 유형과 월경지의 분포를 확인하였고, 산천과 진산을 중점적으로 표현하여 읍치의 공간배치에 작용하고 있는 풍수적 논리를 분석하였다. 동람도-동여비고-해동지도-대동여지도 등으로 시대가 지날수록 풍수적 관념에 따른 산세의 흐름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다. 동여비고와 해동지도를 비교 분석하면 지명의 변화양상과 교통로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동여비고는 불교적 내용과 옛지명이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잘못 표기된 것과 위치의 부정확성이 있다. 해동지도는 유교적 통치질서가 확립된 것이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고 행정구역명이 자세한 지도이다.

참고문헌

- 권상로, 1994, 한국지명연혁사전, 이화문화출판사(1961, 韓國地名沿革考, 동국문화사).
 김기혁, 2000, "지역연구 자료로서의 부산지역 고지도 기초 연구", 부산지리 제9호, 23-52,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김덕현, 2001, "역사 도시 진주의 경관독해", 문화역사지리 제13권 제2호, 63-80,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김한기, 1999, 조선시대 지방도읍의 공간구성과 기능-성주목·밀양도호부·청도군·고령현의 경우, 경북대 석사
 김한배, 1998, 우리 도시의 얼굴 찾기-한국 도시의 경관변천과 정체성 연구-, 태림문화사

15) 성동환, 2001, pp.73-75, 풍수의 형국론에서 봉황과 관련된 裨補는 동화사의 대나무·오동나무·봉황알, 川邑基의 竹防山, 함안읍의 大桐蔽, 선산읍 花鳥里的 五卵山, 醴泉邑의 鳳卵, 순흥의 鳳棲樓, 진주 남강 변의 대나무 숲 등의 많은 사례가 있다.

16) 최원석, 2000, pp.134-138

17) 최원석, 2000, 237-239

18) 최영준 외, 2000, 용인의 역사지리, 61-62

- 성동환, 2001, “팔공산 桐華寺의 풍수 및 伽藍배치의 특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7권 제4호, 65-80
- 순정목, 1992, 한국 지방제도·자치사 연구(상)- 甲午更張~日帝強占期-, 일지사
- 안병직·이영훈 편, 2001, 맛질의 농민들: 한국근세촌락사, 일조각
- 양보경, 1994, “조선시대의 자연 인식 체계”, 한국사시민강좌 14, 70-97, 일조각.
- 양보경, 1995, “공주의 지리와 고지도”, 공주의 역사와 문화, 324-360, 공주대학교 박물관
- 양보경, 2001, “전통시대의 지리학”,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한올아카데미, 15-96
- 양보경, 2002, “고지도로 본 문경의 옛길”, 길 위의 역사, 고개의 문화, 실천문화사
- 예명해, 1998, “조선시대의 지방도시의 공간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1)- 대구 부성의 풍수·교육 및 祭祀 공간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3권 제 6호, 33-47
- 예명해, 2000, “경주의 도시공간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풍수에 의한 입지해석과 도시개조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5권 제 1호, 7-23
- 오상학, 2001, “고산자 김정호의 지도제작과 그 의의”,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용역 논문집, 6-100, 국립지리원
- 원경렬, 1991, 대동여지도의 연구, 성지문화사
- 윤정숙 역, 1995, 역사지리학방법론, 이회출판사 (菊地利夫, 1987, 歷史地理學方法論, 東京 大明堂)
- 윤홍기, 2001, “왜 풍수는 중요한 연구주제인가”, 대한지리학회지 제36권 제4호, 343-356.
- 이상태, 1999, 한국의 고지도 발달사, 혜안
- 李樹健, 1985, 韓國中世社會史研究, 일조각. 李樹健, 1989, 朝鮮時代地方行政史, 민음사.
- 이영희, 2000, 진주시 도시구조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고지도 및 지형도 분석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재환, 2002, 조선시대 邑治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경상북도 지역(칠곡·청도)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논문
- 조경희, 1999, 경상남도 행정구역 변천의 역사지리적 연구-1759~1914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
- 최원석, 2000, 도선국사 따라 걷는 우리 땅 풍수기행, 시공사
- 최원석, 2001a, 영남 지방의 裨補,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학위 논문.
- 최원석, 2001b, 영남 지방의 裨補 邑數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13권 제2호, 103-118.
- 현진상, 2000, 한글 산경표, 풀빛
-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8, 東興備攷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海東地圖(上篇,下篇,解說·索引篇)
-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조선후기 지방지도 영인본-경상도 편
-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한국의 옛지도(圖版編, 資料編), 영남대 출판부
- 이우형, 1990, 大東興地圖의 讀圖, 광우당 (김정호, 1861, 대동여지도)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koreanhistory.or.kr>-해동지도·廣興圖(지도와 解題)
- 민족문화추진회, 1982,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3·4/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국역 증보문헌비고 3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2, 세종장헌대왕실록 24 지리지 I / 1975, 세종장헌대왕실록 30 지리지 색인
- 정구복 외, 1997, “삼국사기 권 제34 잡지 제3 지리1-삼국사기 권 제37 잡지 제6 지리4”,
- 譯註 三國史記 2 번역편, 584-648, 한국정신문화연구원북한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1964, 고려사 5(고려사 권56-58, 415-532), 평양 종합인쇄공장/ 1991 영인, 여강출판사
- 최영희, 1973, ‘輿地圖書 해설’, 輿地圖書(영인본), 1-11, 국사편찬위원회
- 경상도읍지, 1832/ 영남읍지, 1871, 1895 /김정호, 1976, 대동지지(영인본), 아세아문화사